미션21

2025. 7. 9
수요일(주간)
제 850호

등록번호 광주 나 00100 (1999년 7월 2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社是
복음·선교·화합

정통 기독교 신문 미션21

발행·편집인 : 박 현 주
발 행 소 : 미션21
인 쇄 처 : (주)대한칼라
대 표 전 화 : (062) 367-9109
F A X : (062) 367-9108
e-mail : phj2930@nate.com
(우)61652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69(월산동 184-1 동삼빌딩)

미션21 입금계좌
농 협 645-02-066108
예금주 : 박 현 주
국민은행 573-01-0045-028
광주은행 146-127-005850
예금주 : (유) 미션21

구독 및 광고문의 (062) 367-9109

창간 26주년 특집 20면(I) 지면 안내

2 보도 / 더디오 칼럼
3 특집Ⅰ-두암기독병원
4 특집Ⅱ-장애인편의점근성조사 ㉮, ㉯
5 특집Ⅲ- 복음의전함
6 특집Ⅳ- 창조과학회
7 특집Ⅴ- 희년한국 박창수 목사 ①, ②
9 기획 - 김경배 목사의 '가보고 싶은 곳'
11 영성- 영성 / 교육
15 교육- 오피니언 / 건강 / 선교

"복음·연합·선한 영향력 세상을 향해"

제39회기 광교협 임원·위원장 워크숍 성료
교육·의료·법조 등 전문가그룹 위원장 위촉

제39회기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정석윤 목사·이하 광교협) 임역원 및 위원장 워크숍이 지난 6월 19일(목) 오후 5시부터 광주 남구 입암길 181 어반브룩에서 열렸다.

광교협 워크숍에는 외부 강사를 초청하지 않고 대표회장 정석윤 목사가 '복음·연합·선한 영향력'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정석윤 목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며, 연합된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서 광주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는 것이 이번 회기 사역의 방향성"이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만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광교협이 지향할 목적지는 복음 공동체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목사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모두 하나 되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광주지역 1,760여 교회의 연합과 광주 복음화, 그리고 광주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이날 제2부에는 교육, 의료, 법조, 언론, 문화 등 사회 각계 전문가 그룹인 50여 명의 위원장에 대한 조직발표 및 위촉식을 가졌다.

이후 제3부 식사 및 토의 시간에는 교육, 문화, 선교, 복지 등 4개 분과별 토의가 오후 8시까지 이어졌다.

제39회기 광교협 임원 및 위원장 워크숍이 지난 6월 19일 광주 남구 입암길 소재 어반브룩에서 오후 5시부터 열렸다.

생명의 전화가 2025 찾아가는 청소년 응원 캠프 '함께치얼업'을 광주중학교에서 시작했다.

생명의전화 광주중학교에서 '함께치얼업' 포문

2025 찾아가는 청소년 응원캠페인 전국 5개교 방문
오는 9월 대표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걷기'도 예정

생명의전화는 지난 6월 19일, 광주중학교 방문을 시작으로 2025 찾아가는 청소년 응원 캠페인 '함께치얼업'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자살예방 캠페인 '함께고워크' 참여자들의 기부금과 한화생명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전국의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응원사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5개 학교에는 생명존중 캠페인을 운영하며, 추가로 7개 학교에는 자살예방 정보를 담은 청소년 응원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문 학교에는 생명의전화가 직접 찾아가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생명이네 약국', △전국 캠페인 참여자들이 직접 남긴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응원메시지 뽑기', △연결의 가치를 체험하는 '도전! 하이파이브' 등 청소년이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는 생명존중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현장에는 자살예방 정보가 담긴 책자와 응원 리워드도 함께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전국의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임직원 및 FP(재무설계사)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더욱 의미를 더한다.

첫 방문지인 광주중학교에는 14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프로그램 부스를 함께 운영했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화계중학교, 문산수억고등학교, 춘천중학교,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에도 함께할 예정이다. 함께치얼업은 생명의전화, 한화생명보험, KBS한국방송이 공동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KCRP,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후원한다.

또한 메이블린뉴욕, 박카스, LG생활건강, 비크라우드가 협찬사로 참여해 청소년들을 응원한다.

한편, 오는 9월에는 생명의전화 대표 캠페인이자,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전국민 참여 자살예방 걷기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걷기'도 개최될 예정이다.

'극우주의와 세계교회 대응' 주제 국제에큐메니칼 회의

"두터운 언대 없을 땐 지배권력이 종교 통제"
세계교회 대응 계획 담은 '공동선언문' 채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국제 에큐메니칼 공동체들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기독교 극우주의의 확산을 막기위해 '극우주의 대응 에큐메니칼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시아와 북미, 유럽의 신학자와 에큐메니칼 지도자 80여 명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동안 대한성공회 대학로교회에서 국제에큐메니칼 회의를 갖고, 세계 공통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독교 극우주의의 대응을 위해 에큐메니칼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국제에큐메니칼 회의 참가자들은 공동성명에서 "극우주의가 파시즘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갈등하는 세계 현실 가운데 사랑과 화해의 복음을 일깨우는 신학적 과제, 누구나 환대하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루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에큐메니칼 회의 참가자들은 또, "극우주의와 기독교 민족주의의 결합 양상이 특히 미국과 한국에서 두드러진 현상을 매우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미교회를 포함한 세계교회가 서로 협력해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세계 기독교계가 크리스천 내셔널리즘, 즉 '기독교 극우주의'의 확산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유럽, 중동 등지에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극우적 혐오와 폭력이 복음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갈등과 분열, 차별과 혐오를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아시아지역에서 발흥하는 기독교 극우주의에 대해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국제 에큐메니칼 회의를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12.3 내란사태와 미국 사회 이주민 차별정책, 이스라엘의 인종청소 정책 사례 등을 분석하고 기독교 극우주의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국제에큐메니칼 발제자들이 '아시아 극우주의와 교회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하고 있다.

축 미션21 창간26주년

Think GOD, Think Jesus Christ

Here & Now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CBS는 진실, 정의, 공의로 바로 서는 올바른 언론이 되겠습니다.
CBS는 하나님이 중심이신 방송이 되겠습니다.
CBS는 한국교회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방송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CBS Media Group